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227>

JCCT 2024-1-27

한국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 전략 - 첨단기술 확보와 공동연구개발을 중심으로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 Strategy to Enter the World's Big4 - Focusing on Securing Cutting-edge Technology and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박정환*

PARK JUNG HWAN*

요약 한국은 '22년 역대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방산수출은 한국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우수한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견실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산수출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산수출 빅4 진입이라는 화두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기존에 제시된 방산수출 진흥 방안과는 달리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이라는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군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과감한 첨단기술 선정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개발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 기술이 첨단무기에 적기에 적용되도록 신속개발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수출 공동연구개발은 구매국의 첨단기술 보유 의지를 고려하여 초민감 핵심기술을 제외한 유연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수출 변화의 시점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한국의 방산수출이 세계 빅4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주요어 : 방산수출, 첨단기술 확보, 공동연구개발, 신속개발시스템, 전략적 파트너십

Abstract Korea achieved its highest ever defense export performance in 2022. Defense exports are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mote the defense industry by exporting Korea's weapons to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o continuously supply excellent weapon systems, a solid defense industry must be established. So defense industry exports are an important issue at the national level, the Korea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ng policies for the Presidential office as a control tower. In particular, the topic of entry into the defense industry export big4 is being raised in Korea. As an innovative defense export promotion plan, this paper presents a strategic plan of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export customized to the needs of purchasing countries and securing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possess world-class weapon systems.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cure cutting-edge technology, the military must break away from existing methods and boldly select cutting-edge technology, provide sufficient budget support, and grant autonomy to development agencies. A rapid acquisition system must also be introduced so that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advanced weapons in a timely manner. Export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tended to promote flexible technology transfer excluding ultra-sensitive core technologies and to form strategic partnerships, taking into account the purchasing country's willingness to possess cutting-edge technology. Through this, we have helped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s enter the world's big4 through groundbreaking new strategy.

Key words : Defense industry export, Securing cutting-edge technology,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Rapid development system, Strategic partnerships

*정희원, 육군3사관학교 경제경영학과 교수
접수일: 2023년 11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4일

Received: November 30, 2023 / Revised: December 14, 2023
Accepted: December 14, 2023

*Corresponding Author: kpjh21@naver.com

Dept. of Econom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KAAY, Korea

I. 서론 : 이론적 배경

한국은 '22년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기록을 세웠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방산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 이상 수주를 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22년도는 폴란드에 124억달러의 대형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23년도도 최선을 다한다면 해볼만하다고 방산업계와 주무 정부부처인 국방부, 방위사업청도 판단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현정부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방산수출기획팀을 설치해 방산수출을 직접 챙기고 있으며 방산은 미래 먹거리산업, 국가전략산업의 지위에 있으며 전략적인 방산수출 증대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방산수출은 한국산 무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는 우리의 국방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으로 한국군은 국방혁신 4.0 개념을 설정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고 첨단 핵심전력, 국방 연구개발, 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해 경쟁 우위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2].

특히, 육군은 이를 발전시켜 초연결 기반의 지능형 첨단 무기체계를 기치로 내걸고 우주를 활용한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는 슈퍼솔져, 스스로 싸우는 지능형 자율 전투로봇,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적의 전략적 중심을 파괴하는 극초음속 무기, 다영역 초융합 작전을 위한 기동 및 화력 체계, 사이버 및 전자기 스펙트럼 무기, 메가시티 방호에 최적화된 통합방공체계, 독립작전이 가능한 첨단지원체계로 미래 육군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방위산업은 이러한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안보 산업이라는 중요성이 있다. 즉 첨단무기 생산을 통해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국가가 수요자인 특성과 사업 성공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정부 재정 유지로 인한 지속적인 최신기술 접목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국방혁신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관련 법규인 방위사업법에도 주 내용인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반영하여 방위산업육성 기본

계획, 자금유자, 방산수출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그중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방산수출은 중요한데 이를 잘 나타내는 방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방산업체가 충분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이로인해 국내 무기체계의 획득이 증가하여 이를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면 방산수출도 증가하게 된다. 이로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방산수출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가장 가치적인 성과를 내는 방위산업 진흥의 대표적인 방안인 것이다.

현 상황에서 방산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군사력 증가가 가속화 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폴란드 방산수출도 이러한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방산수출 성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방산수출 강국에 대한 바람으로 세계 4강에 들고자 하는 의지가 고조된 상황이며 이러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방산시장 동향과 한국의 방산수출 경쟁력을 진단하고 방산수출 간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실질적인 방산수출 세계 빅4 전략을 제시해봄으로써 향후 방산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II. 한국 방산수출 현황 및 진단

한국 방산수출 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세계 방산시장 동향과 한국의 방위산업을 먼저 살펴보고 한국의 방산수출 경쟁력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세계 방산시장 동향 및 한국의 방위산업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하던 방산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Jane's는 '20년부터 '23년까지 세계의 국방예산이 약 4%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대표적인 무기도 입 국가인 사우디는 '21년에 실제로 전년대비 약 3.8%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동북아 3국은 국방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중국은 6.6%, 일본은 1.1%, 한국은 5.4%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와 미중 군사갈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중 군사갈등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19년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한반도가 미중 군사적 갈등의 한복판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러시아라는 각 진영에 포함된 국가들을 통해 소규모 무력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라는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도 협력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현상유지와 중국의 대만을 흡수하기 위한 무력사용 불사 주장 등으로 분쟁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간 경계선이 강화되었으며 EU를 중심으로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탈피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제질서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안보환경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이로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 북중러 3각 동맹체제의 대결이 고착되어짐으로써 북한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인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 2.4%정도이며 무기수입은 9위, 국방비 지출은 10위 수준이다. 방산업체는 세계 100대 무기생산업체 중 한국 업체는 3개(한화, KAI, LIG넥스원) 정도이다. 미국은 43개, 유럽은 27개, 이스라엘은 3개 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 방산업체의 매출 중 수출비중은 약 15%정도이며 수출 대상국은 증가추세이고 수출품목도 기존에는 탄약류 위주에서 항공기, 함정, 자주포, 유도무기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 방산 무기체계의 장점을 보면 한반도 안보환경으로 인한 구매국의 신뢰가 높은 편이며 한국의 전자, IT 등 발전된 민간 제품의 인지도에 의해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소재, 부품 기술에 투자하여 경쟁력도 향상되어 있다.

단점은 핵심기술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구매국

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의 유연성과 그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2. 한국 방산수출 경쟁력 및 문제점 진단

먼저 방산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4강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 수준을 높이고 세계 수준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 및 보유해야 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22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9위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세계 4강 이내로 도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래를 보고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표 1은 한국의 국방 첨단기술의 수준 및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첨단엔진, 극초음속 추진 등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4].

이러한 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며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한국 국방첨단기술의 수준 및 격차
 Table 1. Levels and Gaps of Defense Advanced Technology

기술명	기술수준	격차연한
첨단엔진	60%	20
극초음속 추진	60%	20
수중추진	50%	15
고위력 정밀타격	57.2%	7.5

최근 방위사업청은 '23년 6월 발간한 2023-2037 국방기술기획서에 항공기용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의 로드맵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5]. 이러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볼수 있다. 향후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수출 방식을 유연하게 다양화하는 노력도 부족하는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맞추어 주지 못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전략지역인

중동지역 등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공동 개발 등 수출 방식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즉 구매국의 요구를 맞추려면 한국군에서 운용중인 무기체계를 개조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업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무기체계도 수출 할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는 구매국과 공동개발하여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구매국에서 생산하거나 제 3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중 가장 수출성사를 높게 하는 공동연구개발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방산업체는 한국군에 공급된 무기체계 사양을 고수하여 수출하려하고 정부는 한국군에서 운용중인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구매국에게 홍보 및 지원을 하는데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수출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로 범정부차원의 수출관련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구매국과의 협력방식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방산수출을 추진하는 방산업체는 우수한 무기체계로 수년간의 수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7]. 이를 위해 수출대상국과의 외교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을 추진하는 방산업체와의 소통도 중요한 문제이다. 방산업체와 정부의 입장이 상이하여 문제가 되거나 수출이 좌절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업체의 협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8].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수출이라는 특성상 제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였으며 발전방안은 집단지성의 공통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 은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방산수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현 상황을 진단한 후 발전시켜야 하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별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저자의 약 20여년간의 무기개발 및 방산수출

실무경험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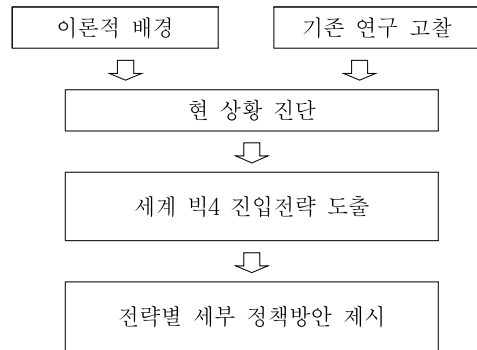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분석 틀
Figure 1. Framework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IV. 한국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 전략

발전방안은 크게 3가지 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가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첨단무기 기술 및 개발 능력 확보, 둘째는 공동연구개발 중심의 수출방식 다양화, 셋째는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다.

표 2 는 한국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전략을 전략과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 한국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전략
Table 2.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 Strategy to Enter the World's Big4

구분	전략	정책
첨단기술 확보	세계 수준의 첨단 무기 보유	-과감한 첨단기술 과제 선정과 절차 간소화, 예산 집중 투입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첨단무기 신속개발 제도 발전
구매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중심 추진	맞춤형 수출방식 다양화	-구매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중심의 창의적 방안 강구 -기술이전에 대한 유연성 확보(초민감 기술 보유) -후속군수지원 조치 강화
정부차원의 지원	범 정부기관의 실질적 지원 강화	-구매국과의 신뢰 향상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운용 -대륙별 거점 국가 선정 -업체와의 소통 강화

1.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수준의 무기 보유

먼저 국방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국방첨단기술은 개발 최우선에 두고 과감히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국방 첨단기술사업 과제의 도전적 선정과 선정 이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현 연구개발 제도인 핵심기술과 미래도전기술, 민군기술협력 사업 등을 상호 간 중첩되는 것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국방 첨단기술 개발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등 연구개발에 과감한 도전적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함으로써 진정한 첨단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현 첨단무기 개발 제도도 신속개발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세계 수준에 발맞추도록 해야 한다 [9].

물론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 정부부처의 국가 정책적 관심, 유연한 절차로의 규정 보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구매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중심의 수출 방식 다양화

구매국이 원하는 맞춤형 수출 방식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구매국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출 방식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기술을 과감히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초민감 핵심기술은 보유하고 보안조치를 하며 적절한 기술료를 부여하고 적절한 시점까지 관리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매국도 기술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해야 하는 정책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 방식은 구매국의 기술보유 의지를 고려하여 기술협력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원칙아래 향후 공동으로 제 3국 진출도 가능성을 전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국방 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초민감 핵심기술을 제외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되 기술이전 방식에 촘촘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결국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

현지 생산방식을 추진하여 원가를 절약하고 일자리

창출로 양국간 협력 이미지도 구축하며 국내 부품업체도 관련 구매국의 부품 업체와 협력하여 납품하도록 하여 협력의 범위를 더욱 넓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도 공급망을 더욱 넓힐수 있으며 이때도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여 지속적인 한국 업체에 의존하게 하여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도록 해야한다.

표 3 은 방산수출 공동개발 방안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구매국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며 수출 성사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표 3 방산수출 공동연구개발 방안
 Table 3.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s for Defense Industry Exports

구분	공동개발 방안
협력 기본방침 설정	-수출국과 구매국의 장점 도출 활용 (자본, 기술, 노동력 등 고려) -기업주도 정부지원 방식으로 적극적인 기술이전, 품질보증, 후속군수지원 방안 추진
현지생산 공동개발 방식 설정	-기존 공장 등을 활용하여 신규 현지 공장 설립 -단계별 생산 방식 추진(완제품 수출-부분(조립생산-완전조립생산(공동 연구개발 병행)) -협력업체 확대 및 제 3국 수출 추진
기술이전 방향 설정	-구매국 수준을 고려한 기술이전 범위 설정 -기술이전과 핵심부품 공급 방식 혼용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술 보호 협정 체결 등으로 안전장치 확보
정부차원의 협력	-도입물량 등 사업성 보장 -군사훈련, 무기 운용/정비 체계 등 지원 -협력간 양국 정부 행정처리 등 간소화

3.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강화

수출대상국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한다.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는 규범과 원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면서 동맹국, 파트너십국과 미래비전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초라면 한국의 입장과 같은 국가와 협력이 강화될 것인데 이는 기존보다 특정한 국가와 더욱더 협력이 가속화되고 신뢰가 더 쌓일 것이다. 이러한 기초로 인하여 한국의 무기체계가 필요한 국가가 있게 될 것이

다. 최근 대규모 수출을 성공한 폴란드의 경우도 이러한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대륙별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무기도입 정보를 획득하여 역량을 집중한 후 수출을 성사시킴으로써 교두보를 만드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수출 업체와의 내실 있는 소통을 통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히 선정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는 수출 지원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V. 토론

한국군이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첨단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무기 연구 개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축적된 첨단기술을 계속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충족되어야 첨단무기 개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굳건한 성장과 발전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사업과 함께 방산업체의 진흥을 이루도록 법령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당국은 방산업체의 성장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기는 어렵다. 결국 방산업체가 스스로 보유한 기술을 이용하여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것을 가장 빠르게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방산수출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방산수출을 국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강대국의 견제와 국방 첨단 기술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국가간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등 방산수출은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도전이며 어려움과 좌절의 연속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힘이 평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려워도 가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다른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한국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VI. 결론

먼저 첨단기술 확보는 정말로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국방과학기술 개발 현 생태계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혁신적으로 세계 수준의 기술로 도약하기 위한 획기적인 예산과 절차를 도입하여 도전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현재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매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중심의 맞춤형 수출 방식 다양화는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국가 예산이 일정부분 투입되어 유지되는데 이러한 벽을 넘어서는 도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부 즉 군당국의 실질적인 지원과 이를 넘어서는 민간 금융, 산업 부처의 실질적인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변혁적 마인드 전환이 절실하다.

향후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방안과 공동연구개발 사례도출을 통한 체계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T. H. Kim, T. B. Choi "A Study on the Security Contribution of Defense Industry Export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30, No. 1, pp.73-85, 2023. doi.org/10.52798/KADIS.2023.30.1.6
- [2] C. M. Lim "Developing AI-based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Strong Military Power," *Defense Daily*, September, 30, 2022.
- [3] C. H. Kim "Developing the Defense Industry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Defense Daily*, July, 25, 2022.
- [4] D. H. Kim, H. S. Lee, "Satellite Hypersonic, Missile Defense Technology: only 50 to 60% of the US and UK," *HanKyung*, May, 15, 2023.
- [5] A. R. Han, "Korea is developing fighter jet engines-At least KRW 9 trillion in added value over 20 years," *Dongailbo*, October, 12, 2023.
- [6] W. J. Jang, J. P. Song, M. J. Kim, U. G. Bang, "Analysis of Key Defense Export Indicator and

- Strategy for Developing the Defense Industry market in the Middle East,” *The 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 Vol. 1, No. 1, pp. 69-86, 2018. doi.org/10.37944/jams.v1i1.11
- [7] K. H. Lee, S. Y. Sim “A Study o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Support for Offset in Defense Export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30, No. 2, pp.17-30, 2023. doi.org/10.52798/KADIS.2023.30.2.2
- [8] S. Y. Yeo, J. H. Jeong, S. H. Kim “A Study on the Finding of Promising Export Items in Defense Industry for Export Market Expansion-Focusing on Text Min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7, No. 10, pp.235-243, 2023. doi.org/10.9708/jksci.2022.27.10.235
- [9] J. H. Park “The Plan for Rapid Development of Advanced Weapon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9, No. 5, pp.27-33, 2023. doi.org/10.17703/JCCT.2023.9.5.27

※ 본 논문은 육군3사관학교 부설 총성대연구소
2023년도 논문게재비 지원을 받았음.